

## 쇼류지성 공원

나가오카쿄시의 쇼류지성 공원은 옛날 ‘쇼류지성’이라는 성이 있던 곳에 정비된 공원입니다. 쇼류지성은 16 세기 일본 역사상의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깊은 성으로 한때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인 호소카와 다다오키(1563~1646년)와 그라시아(1563~1600년) 부부의 거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라시아는 연애와 기독교로의 개종, 그리고 그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스토리로 책과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널리 사랑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망루를 갖춘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공원 안에는 회유식 정원과 천수각 형태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내에는 쇼류지성과 인연이 있는 인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 쇼류지성

쇼류지성은 중요한 하천교역로와 교토 남서쪽 방향의 방위를 위해 16 세기 중반에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성의 이름은 근처에 있던 쇼류지 절에서 따왔습니다. 1568년, 그때까지 미요시 가문의 세력하에 있었던 쇼류지성을 오다 노부나가(1534~1582년)가 공략하여 자신인 호소카와 후지타카(1534~1610년)에게 하사했습니다. 1571년, 노부나가는 돌담과 기와, 천수각의 설계 등, 당시의 최첨단 건축 기술을 이용하여 대폭 개축했고, 이들을 개축한 성과는 나중에 노부나가가 거성으로 삼은 장대한 아즈치성에 활용되었습니다.

## 로맨스와 비극

1578년, 호소카와 후지타카의 장남인 다다오키는 같은 오다 노부나가의 자신인 아케치 미쓰히데(1528~1582년)의 딸 다마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쇼류지성에서 열렸으며, 다다오키가 단고국(현대의 교토부 북부)의 영주가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부부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1582년, 다마의 아버지인 미쓰히데가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교토 혼노지 절에서 노부나가를 습격한 결과, 노부나가는 자살하고 다마는 배신자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노부나가의 지위를 이어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년)의 군은 야마자키 전투에서 미쓰히데 군과 싸웠습니다. 히데요시 군은 미쓰히데 군을 압도하여 쇼류지성까지 추격했습니다. 미쓰히데는 밤중에 북문으로 달아났으나 직후에 살해당했습니다.

다다오키는 다마를 단고국의 작은 마을에 숨겼지만, 히데요시가 자신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다오키의 가족을 오사카성 가까이로 이주시키라고 명하여 다마는 정치적인 인질이 되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동안 다마는 남몰래 천주교로 개종하여 그라시아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2년이 지난 1600년에 히데요시의 전 자신 가운데 한 사람이 적대적인 도쿠가와 군에 자신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 그라시아 등 자신의 가족을 인질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무사의 아내는 남편에게 불리한 형태로 이용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라시아가 믿는 천주교에서는 자살이 죄이기 때문에 직접 행동할 수 없

었습니다. 대신 남편 다다오키의 가신이 그라시아의 목숨을 끊고 저택에 불을 지른 다음, 가신 또한 그라시아를 따라 자살했습니다. 그 이후 호소카와 그라시아는 역사 속에서 매력적이고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 공원의 모습

16 세기에 축성된 쇼류지 성터는 북문의 돌담 부분과 토루, 그리고 해자의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처럼 보이는 건물은 1992년에 이곳이 공원으로 정비되었을 때 건설된 관리동입니다. 공원 주위의 해자를 따라 철쭉이 심어져 있어 봄에는 붉디붉은 꽃을 피웁니다. 공원 안에는 잉어가 노니는 연못, 벚나무와 단풍나무, 작은 대숲, 그리고 쇼류지성에 살았던 다다오키와 그라시아의 상이 있습니다. 관리동 2층에는 전시실이 있어서 당시 성의 도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그림으로 보는 연표, 출토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라시아의 생애에 관한,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두 번째 일요일에는 나가오카쿄 그라시아 축제가 활기차게 개최되며 쇼류지성 공원으로 향하는 결혼 행렬이 재현됩니다.